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 쇄 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1999년 11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36호

구멍뚫린 한약재 수급조절 식품원료로의 반입량 올들어 12배 증가

한약재로 수입이 제한돼 있는 수급조절대상 품목임에도 식품으로 반입돼 시중에서 한약재로 변칙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농민들의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물량 감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작약, 구기자 등의 한약재가 일부 장사군들에 의해 식품용으로 반입돼 시중에 유통됨으로서 본격 수확기에 접어든 생산농민들의 재배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중 식품원료로의 반입량은 10월4일 현재까지 총1,558톤 정도로 지난해 반입량 130여톤에 비해 무려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기, 당귀, 작약, 천궁 등 국내 소비규모가 큰 품목들의 경우 식품용 반입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30~40배, 무려 500배까지 증가했다. 집계되지 않은 물량까지를 감안한다면 실제 식품용 반입량과 시중유통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것이란 분석.

이처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식품용 반입증가 추세는 한약재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는 반면 식품으로는 자유롭게 수입해 올수 있도록 돼있는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에서는 ▲수급조절품목에 한해서는 식품용 반입제한 ▲관세율 차등적용 ▲식품

용 원형반입 제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WTO체제하에서는 식품용의 반입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답변을 얻었을 뿐이다. 제도적 모순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 모두가 손 놓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차라리 수급조절품목 자체를 현실적으로 조정 관리하자는 안도 제기되고 있어 최근 본격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수급조절 품목 축소조정안 세부방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상의 근본적 모순이 보완되지 않은

식품으로 반입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현황 (단위/kg)

품 목	수 량	
	98년	99년(10.4현재)
구기자	53,580	249,973
당 귀	683	24,374
독 활	-	1,500
맥문동	-	4,400
백 출	1,208	217,466
백작약	1,050	41,500
산수유	-	1,020
오미자	43,750	135,902
지 황	473	2,020
창 출	8,000	256,405
천 궁	2,205	271,338
황 기	525	307,258
계	111,474	1,513,156

기 번 안 내

- '국내 감초재배 전망있다' 3면
- 유통·시세정보 4면
- '한방차'로 따뜻한 겨울나기 4면
- 재배 기술 정보 5면
- 서유럽에서 인기있는 생약재 6면



▲지난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삼성코엑스 전시관에서 열린 '제1회 한의학국제박람회'에 생약협회는 약초생물표본과 국산 한약재 샘플, 약초분재등을 전시했다.

상황에서라면 수급조절제의 존치는 품목의 단계적 축소 조정안이든 한낱 빛바랜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수급조절품목 제도 운영상의 모순은 해당품목의 기원식물이 국산 수입산 서로 다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방풍, 강활, 독활, 당귀(참당귀) 등은 중국약전, 일본약전상의 기원식물과 달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당 품목을 수입해 온다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제한근거는 없는 형편.

수급조절제의 이같은 허점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엔 방풍(식방풍)과 비슷한 (육안으로 구별 어려움) 해방풍(원방풍)이 식품으로

대량 반입돼와 시중 유통되기도 했다. 수급조절품목으로 지정 수입이 제한돼 있는 방풍과는 달리 해방풍은 외관상 비슷하기는 하나 방풍과는 학명과 기원이 엄연히 다르고 대한약전상에도 별개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수입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처럼 허울뿐인 수급조절제도, 그러나 경쟁력이 미약한 국내 생약농업 여건상 수급조절제는 그나마 생약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품목조정 논의보다 내실 있고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마련이 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문정희>



온세통신 시외전화 탄생기념!

생약인을 위한 특별 행운 추첨

행사기간: 10월 20일 ~ 11월 10일

퀴즈1: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시외전화는 12월 1일부터 제공되는 □□ 통신 시외전화입니다.
퀴즈2: 온세통신 시외전화 이용을 위한 시외전화 □□ 등록 신청은 영업센터나 고객센터로 전화 한통화만 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 1등 - 백화점 1백만원 상품권, 온세전화 30년 무료이용권 (월 1만원 한도)
- 2등 - 백화점 50만원 상품권, 온세시외전화 10년 무료이용권 (월 1만원 한도)
- 3등 - 온세시외전화 1년 무료이용권 (월 1만원 한도)
- 4등 - 전국론도 1박권
- 5등 - 품질평가단 응모자 중 선착순 2만명에게 온세통신 시외전화 1만원 무료이용권 (온세통신 시외전화 가입조건)

- ★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 ★ 퀴즈 당첨자 발표: 11월 22일 월요일 스포츠 서울 및 온세통신 홈페이지 (<http://www.onsetel.co.kr>) / 개별통보
- ★ 응모처: 서울시 강남구 강남우체국 사서함 408호 온세통신 퀴즈대잔치 담당자앞 (우편번호: 135-604)

온세통신이 오는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시외전화를 시작합니다. 12월 20일까지 생약협회나 온세통신 접수처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일반가입자보다 5%를 추가한 **15%**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외전화 변경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등록을 하시면 시외전화 이용방법은 예전과 똑같고 요금만 온세통신의 저렴한 요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온세통신 요금중 일부는 생약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소중한게 쓰여질 것입니다.



★ 문의처 ★
한국생약협회 02-967-8133 / 969-6875
온세통신 접수처 02-528-4247 / 528-5641, 5550